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스기랴 8:20-23)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복음은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내 교회만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음은 온 천하 모든 백성에게 전파되어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은혜는 혼자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함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문은 베엘에서 온 사람들이 금식에 관하여 질문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이것은 또한 신약 시대에 대한 예언으로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 될 것이고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부터 자유 함을 얻음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유란 구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받은 사람들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기쁨을 누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1.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20절).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며,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각각 제 나라 말로 알아 들었다고 했습니다(행 2:9-11). 이상한 말을 듣고 이상한 체험을 한 그들은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들은 말씀을 증거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새생명 운동이며 교회 확장 운동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입니다. 복음은 헬라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소아시아인에게도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게으른 사람도 지적이고 호기심 많은 사람도, 부지런하고 세상에 익숙한 사람도 각각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이는 소우주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22절).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도, 러시아도 영국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가 다른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깁니다(23절).

세계의 열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누가 교회에 오는가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21절).교회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권면하면서 자발적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생 제물을 들고 온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올 때에는 희생 제물이 완전히 없어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예물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불교에서처럼 구도자의 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찾는 것입니다.

성도가 간절히 구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의 의무를 양심대로 행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면서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게 하며 하나님의 공호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계시와 제도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옵니다. 22절의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루살렘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제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여호와 이레와 평화라는 살롬의 합성어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화의 도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며 말씀이 있고 희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치면서 기뻐하고 드

리면서 감사하는 곳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의 영적 요람인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의 도시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초초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상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21절).

성도들은 서로 하나님께로 갈 것을 권면합니다. 목자의 역할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돌보는 것이라면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은 양이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회자는 성도들을 돌보고 전도는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했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복음은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내 교회만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음은 온 천하 모든 백성에게 전파되어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은혜는 혼자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함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23절).

복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이 달려들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므로 함께 가자고 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4 회 새가족부 홈커밍데이 개최

9월 2일(토) 오후 3시 30분

새가족부는 오는 9월 2일(토), 오후 3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8층 만나홀에서 제 4 회 홈커밍데이 행사는 갖는다.

대상은 2003년 8월 31일 이후에 등록한 새가족이며 이 시간에는 당회원들을 비롯한 교회 일꾼들과 교제를 나누고 소속 선교회 및 전도회, 교구 다락방등을 확인하게 된다.

다. 새가족부 홈커밍데이는 이 시간 새가족과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 새가족들이 교회 봉사부서와 열린 프로그램 등 교회의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케 하므로 새가족들의 교회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각 교구의 교구장, 간사 및 다락방장, 각 선교회 및 전도회 회장단은 필히 참석하여 대상 회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란다.

안수집사 인사정책 바뀐다

우리교회는 금번 안수집사로 피택된 이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봉사부서 임명 시 소외되는 집사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안수집사 인사정책을 바꾸기로 하였다.

- ① 안수집사는 전도학교를 수료하여야 하고 교사양성반과 찬양대 양성반 중 하나를 수료하여야 한다.
- ② 남 선교회 회장은 안수집사로 선출할 것을 권장사항으로 한다. 남선교회의 회장은 다른 부서의 장이 될 수 없다.

- ③ 지도자 성경반을 주중에 개설하여 스테반회가 주관케 하여 안수집사의 영적 훈련을 강화하고 그 참여도에 따라 인사배정 시 참고한다.
- ④ 1인 1부서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 ⑤ 안수집사 월례회 출석 성실자는 교회 행사 참여에 우선권을 준다. (장로 안식년 기간 중 안식 장로는 전도학교를 수료하여야 하고 교사 양성반과 찬양대 양성반 중 하나를 수료하여야 한다)

전도학교 10기생 수료 11기생 모집

오늘 찬양예배 시 수료식, 8월 29일 11기 시작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전도학교 제10기생 35명의 수료식을 갖는다. 그동안 이들은 토요일 저녁 7시 혹은 주일 오후 2시에 12주과정의 전도이론을 공부하며 또 70인전도대 목요축호전도대와 수요일간 및 토요일간전도대, 중보기도팀과 문서전도팀에서 활발하게 전도실습을 펼쳐왔다. 한편 다음주(8월29일)에는 제11기 전도학교가 시작된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다음 주일까지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수료자는 다음과 같다.
관장철 관장환 김광룡 김규태 김성준 김영빈 백수남 서경학 양인수 오승민 이상태 원용규 유근중 유신 유희성 이동권 이재운 이찬호 정동학 조성업 한중우 홍일성 김선영 김영식 김정순 김천애 김춘제 박경자 배병이 배은희 서순영 심상필 오영숙 이형희 임분도 최숙자 (36명)

2004 성경암송대회

산상보훈(마 5-7장)을 본문으로 10월 29일(금) 본선가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모든 성도들의 생활에서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있는 우리교회는 매년 가을철에 성경암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암송하게 되는데 산상보훈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본문으로 암송하게 된다. 10월 24일(주) 교회학교별 예선을 치르며 10월 29일(금) 본선을 치르게 된다.

문형숙 선교사 선교지 변경 북아프리카 모로코로

그동안 중앙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의 소임을 다하던 문형숙 선교사가 현지에서의 사역이 끝남에 따라 북아프리카 지역 모로코로 선교지를 변경하여 사역하게 되었다. 성도들이 지속적인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다.

위원회 개편된다

교회는 원활한 교회조직의 운영과 부흥하는 교회의 효과적 봉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신설, 개편하기로 하였다.

현재	개편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부·찬양부	찬양위원회
재정·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관리위원회
순례자·멀티미디어	홍보위원회 순례자 멀티미디어 홍보부

천국일꾼 양성 - 장로수련회를 마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장로이기를



노환장로(11교구)

무척이나 무덥던 여름의 막바지로 접어들어 8월 13일 저녁 장로 수련회를 위하여 70여명의 장로 부부들이 평택에 있는 진위고등학교의 생활관으로 모였다. 김기수 목사님과 이종운 목사님의 계속되는 특강과 기도회 그리고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장로의 책무와 자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적전쟁 등에 대한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귀중한 시간들을 가졌다.

장로로 세움을 받은 이래 여러 번 들은 말씀들이고 잘



이는 내용들이지만 장로로서 신앙과 생활에 있어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일이, 주의 일에 앞장서며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해야 할 일인가를 새삼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장로, 사람들

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장로가 되자. 성도들에게 예배와 봉사와 생활에 본을 보이는 장로가 되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장로가 되자." 마음에 다짐하며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제목들이다.

세상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모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장로가 되기를 소원한다.

순례자 기획기사

돌아보는 서울교회

- 논현동 시대 -

다음은 현당을 앞둔 기획기사로 서울교회 10년사에서 발췌, 3회에 걸쳐 내보낸다.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설립하시며 지난 1991년 9월 먼저 이옥녀 노영숙 백영희 김중복 권사를 비롯한 39명의 여성도들을 모아 먼저 회개의 눈물과 기도로 준비를 시키시며 한편 이영세 박철훈 오정수 김광신 장로등이 예배드릴 처소를 마련키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준비된 논현동 예배당을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셨다. 논현동 예배당은 강중심 집사 전인화 권사 내외분이 새로 신축한 빌딩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흔쾌히 허락하신 것으로 비로소 예배할 처소를 찾은 것이다.

1991년 10월 6일 교회설립을 위해 이영세 박철훈 오정수 유운진 장로를 비롯하여 나희주 윤봉준 안수집사, 이옥녀 김중복 노영숙 백영희 권사 등과 최중시하영수 집사 등으로 교회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믿음의 형제 169명이 모여 논현동 예배당으로 사용될 빌딩의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 꿰어 앉아 눈물로 감사예배를 드리고 제1차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임목사로 이종운 목사를 청빙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1991년 10월 8일 이종운 목사가 말씀과 기도로 상처를 치유 받고 사도행전 18:18 말씀에 따라 삭발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하며 희망찬 모습으로 귀국하였다.

1991년 10월 9일, 오후 7시 수요일예배에서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첫 번 설교를 하였다.

1991년 10월 10일 교회 창립 준비위원회 두 번째 모임에서 교회 설립 때까지의 준비사항을 논의하고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처럼 지명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이종운 목사의 제안에 따라 '서울교회'로 명명하기로 했다.

1991년 10월 13일 서울교회는 드디어 첫 주일예배를 드렸다. 위임목사로 이종운 목사가 취임하였고, 이 때 교회주보 1호도 발행되었다. 또 교회창립준비위원을 증원하여 이종운 목사와 이웅선 장로 서문석, 윤봉준 집사가 추가되었고 또 믿음의 선배인 이웅선 장로가 행정과 기획 부서를 맡아 수고하기로 하였다.

1991년 10월 17일 교회창립준비위원회는 교회 설립일자를 확정하여 처음 기도모임을 시작한 1991년 10월 6일을 기점으로 하였다. 50일째 되는 추수감사절을 기하여 설립예배를 드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바로 오순절의 의미를 단 것이다.

1991년 10월 27일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청부 새가족부 등 7개 교회학교가 개설되었다. 또 급속히 늘어나는 교인 수 때문에 예배 횟수를 늘리게 되었다.

1991년 10월 31일-11월 2일 종교개혁 474주년을 기념하는 출애굽 대행진(특별새벽기도회 오전 5시-6시) 이종운 목사를 강사로 전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991년 11월 3일 계속되는 성도의 증가로 부교역자 네 분을 청빙하고 교구를 11개 교구로 분할하여 다락방을 조직하였다.

1991년 11월 10일 남녀전도회 각 6지회의 설립총회를 가졌고, 11월 24일부터 교회신문인 '순례자'를 격주로 발행키로 하였다.

1991년 11월 17일 교회 설립을 앞두고 '여리고 행진 24시간 연속기도회'를 11월 18일-24일까지 다락방별로 실시하였다.

1991년 11월 24일 교회 설립을 위한 기도를 시작한 지 7주간, 50일째 되는 날, 오전 11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오후 3시에 교회 설립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535세대 1860명의 교인이 설립회원이 되어 주님의 몸 되신 '서울장로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서울교회는 논현동 예배당이 계속 증가하는 성도들을 감당키 어려워 대치동 예배당 시대를 열기 전까지 더 넓은 예배 환경을 찾아 처소를 서초구 반포동 737-7번지로 옮겨 1994년 5월 1일 '반포동 예배당' 시대를 열게 된다.



순례자 기획기사 - 드리는 자의 기쁨 ①

과부의 두 렫돈을...

체코 공화국의 수도 프라하에서 서울교회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7월31일) 14시간 비행을 하여 이곳에 무사히 도착한 후 예정대로 학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출발하던 날 새벽, 사랑하는 김재원 집사님의 천국환송예배를 집전한 일이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웬일일까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 서울교회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지난 토요일(7월29일) 낮12시 50분쯤으로 기억됩니다. 숨 막히는 전화벨 소리와 함께 최순애 권사님의 긴급 기도요청 소리에 저는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한 채 강남구 수서동 김재원 집사님 맥으로 달려갔습니다. 몇 년째 기도도 못하신 김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거룩했습니다. 자녀들이 둘러앉았고 최 권사님은 방안을 깨끗이 정돈해 놓으시고 사랑하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목사가 왔다는 권사님의 전언을 들으셨는지 눈꺼풀을 조금 움직이셨습니다. "하늘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저는 제 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가 천성을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이 무렵 김 집사님은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마지막 움직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듯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 손 붙잡으시고 천국가세요" 외치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그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아멘"했을 때 이미 그는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의 눈꺼풀을 덮고 턱을 고이고 나자 권사님은 남편을 보면서 당황하거나 슬퍼한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이 어디 있느냐"하며 감사의 눈물을 닦으신 후 허리춤에서 무엇인가 꺼내어 제게 주셨습니다. "고인의 유언입니다. 목사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몇 달 전 일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때에도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달려간 제게 손수건에 꼭 싼 현금을 건네시며 서울교회 예배당 지을 때 벽돌 한 장이라도 보태고 싶었다고 하셨고, 과부의 엽전 두 렫돈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자신은 구호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형편에서 약값이라도 보태라고 문병 온 성도들이 두고 간 위로금을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을 모아 하나님께 바치신 것입니다. 모인 모두는 "이 현금 벽돌이 되어 서울교회 예배당 짓고, 김 집사님, 최 권사님 간절히 소원하시는 대로 복음의 나팔소리 크게 울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아직 피도 식지 않은 시신 앞에서 권사님의 침착하고 믿음직한 행동은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부은 여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과 그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김재원 집사님은 천국에 보화를 쌓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받은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가셨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간은 이곳 시각으로 새벽 4시 30분입니다. 시간차로 인해 잠을 깬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할 강연과 설교 등 할 일이 무거워 잠을 설치 이 새벽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이 한 분, 한 분 자꾸만 떠오르고 김재원 집사님의 천국 가시던 모습이 아련히 보여 멀리서나마 새벽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한 주간도 은혜 중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교회와 나라 전체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불비례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작은 종이 이종운 목사 드림
(1995년 8월3일 순례자에서 발췌)

장로가정탐방 - 하영수 장로가정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하영수 장로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인 1952년 성탄절 새벽에 이웃집에서 부르는 새벽송 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울린다고 한다. 당시 하영수 장로님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었고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던 때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 기억에 남던 찬송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두 아들도 이런 부모의 결단에 기꺼이 순종해 교회를 옮겼고 그 후 아이들은 대학부 임원으로 교회를 섬겼다. 현재 하 장로님은 초등부와 시온찬양대에서 봉사하고 계시고, 박정순 권사님도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봉사중이다.

그러나 그때 기억에 남던 찬송 소리가 영혼의 고백이 되는 경험을 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더 흐른 뒤였다. 일제시대와 6.25 등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장로님의 가정은 인적이나 물적으로 극심한 어려움 속에 가세는 나날이 기울었다. 당시의 어린 장로님은 생활비와 학비 마련을 위해 거의 모든 시간을 바쳐야 할 만큼 생존을 위한 삶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하 장로님 내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두 아들(원일, 상우)을 낳고 유치원을 보낼 때쯤이었다. 두 아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하 장로님 부부도 교회에 등록하고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하 장로님은 1976년도 어느 여름 온 교회가 함께 기도원에 갔을 때 성령의 큰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하 장로님은 본격적으로 은혜 속에 기쁨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교회 봉사에도 열심을 내면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감사가 깊어져갔다. 몇 년 후 화곡동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했고 그 뒤로 서울교회 창립을 전후해 불어닥친 혹독한 시련에서도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되겠다는 나름의 결단과 이종윤 목사님의 깊이 있는 설교 말씀을 따라 서울교회 설립의 일원이 되기로 결심했다.

일생에 가장 잊지 못할 은혜로운 사건으로 IMF의 극심한 경제난 가운데서도 서울교회 예배당을 건축한 일을 꼽는다. 당시 하 장로님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독으로 봉사했다. “건설회사가 경영난으로 부도를 당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풍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배당을 더욱 저렴하고 아름답게 짓도록 오묘한 길로 인도하셨죠.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건설회사 없이도 건축할 수 있는 임시 법’을 정부가 제정한 것입니다. 건축주가 직접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법대로 원칙을 고수하려 한 이종윤 목사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고 하 장로님은 말한다. 이제 예배당 헌당을 앞두고 모든 성도의 충성과 순종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하 장로님은 새로운 헌신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장해 주신다고 믿으며 살고자 합니다.....”

김민철 <편집부>

나의하남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신 하나님

이병연 집사(5교구)

제가 산행을 시작한 것은 지난 겨울이었는데 벌써 한 여름이 되었습니다. 매 주마다 오르는 청계산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은 매번 그 느낌이 다릅니다. 그 산을 오르내리면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산악회 회원들과의 교제는 큰 감사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전 무릎관절과 허리통증으로 약에만 의존하여 살다가 산행을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주위의 권고에 힘입어 조심스레 산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산중턱에서 돌아오기도 하였고 산길에서는 무릎통증으로 부축받기도 하면서도 매주 꾸준히 산을 오른 결과 이제는 선두에 설 만큼 건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배봉 정상에서 부르는 찬송가 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장로님의 성구 암송,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와 간식... 그리고 하산 길에 집사님의 인도에 따라 배우는 택견과 마무리 운동 등이 모든 것이 저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특별히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서울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주신 건강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정

- 오신옥 집사(13교구) 평택대학교 교수로 임명
- 교역자 휴가: 이규정 목사(8월 23일-28일) 대행: 이성득 목사
김은호 목사(8월 23일-28일) 대행: 윤영국 목사
- 주간 식당 봉사: 안드레 남성교회(8월 22일) 베드로남성교회(8월 29일)
- 금주의 식사: 이종윤 목사 훈육복 사모 이미리(김태욱), 이미영(박원택), 이미경(서영임) 가정(목사님 생신을 감사하며)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케이불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위정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HLKX 106.9 MHz(국통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호산나넷 - (http://hosanna.tv) 기독교 TV - (http://www.cts.tv)

분천중앙교회에서 온 편지

서울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귀 교회와 당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뢰울 말씀은 서울교회에서 2004년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우리 분천중앙교회와 분천지역에 파송하신 농촌전도대의 놀라운 활동 결과 많은 결신자를 얻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헌신과 봉사를 크게 하여 모든 주민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격려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울러 귀 교회 전도대에 대한 온 지역 주민들의 너무나 좋은 반응에 부응하고, 새 교우들의 성공적 정착

을 위하여 농한기에 최소한의 의료 봉사팀과 미용 봉사팀을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에 파송하여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귀 교회 농촌전도대가 보여준 헌신적 노력과 귀 교회의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언제나 귀 교회와 당회 위에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2004년 8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분천중앙교회
목사 강성효 드림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가을사경회 (9월 6일~10일)와 헌당을 위한 건축헌금을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26학기 목회자세미나와 성경대학 · 열린프로그램을 위하여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